

SBS 〈서바이벌 독서퀴즈왕〉

# 책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퀴즈 프로그램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출판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법한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SBS가 지난 1월 15일 첫 방송을 내보낸 〈서바이벌 독서퀴즈왕〉이 바로 그 주인공. SBS는 올해 초 일부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최근 방송가에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 어른 대상 퀴즈 프로그램이 아닌 어린이 대상 퀴즈 프로그램을 선보여 적잖은 화제를 모았다. 〈서바이벌 독서퀴즈왕〉은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4시 35분부터 5시까지 매주 두 차례 전파를 타고 있다.

## 7연승, 세계문화여행 기회 주어져

지난 1월 19일, 기자 일행이 3회분과 4회분 녹화가 있던 SBS 일산 제작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참가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그도 그럴 것이 1회와 2회에서 연속 우승하며 3연승을 눈앞에 둔 ‘햇빛사냥’ 팀이 3회분 촬영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3연승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3회분 촬영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만난 햇빛사냥 팀 임창호·박지향 씨 부부와 딸 지원 양은 4연승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버지 임창호 씨는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다시 책을 접할 수 있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면서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웃음지어 보였다. 매일 3권의 책을 읽는다는 임지원 양은 “공부 안 하고 책 읽는다고 혼난 적도 많은데, 여기 나오면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좋다”면서 “응원 온 친구들과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4연승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아쉽게도 햇빛사냥은 4연승에 실패했다. 남원에서 올라온 삼국지 팀이 발군의 실력을 선보이며 새로운 승자로 올라섰다.

〈서바이벌 독서퀴즈왕〉의 진행방식은 생동감 있다.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가 한 팀을 이루고, 모두 3가정이 나와 실력을 겨

룬다. 모두 3라운드를 거치게 되는데, 1라운드는 아빠와 엄마, 자녀가 한 문제씩 OX 퀴즈를 푼다. 1라운드의 경우 적립금은 1만 원이다. 5만 원의 적립금이 주어지는 2라운드는 어린이들이 책 제목을 보고 상상한 것들을 나열한 영상을 보고 책이름을 맞추는 영상퀴즈, 책 속의 지명 맞추기, 책 속의 등장인물 맞추기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된다.

1, 2라운드의 문제 난이도는 다소 낮은 반면, 난이도가 높은 3라운드에서부터는 각 팀의 진짜 실력이 발휘된다. 책을 읽어 본 사람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다.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 오히라의 첫 번째 남편은 누구인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데미안이 중상을 입는 전쟁은 무엇인지 등 성인들도 다소 헛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3라운드의 적립금은 선택하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승의 향방을 가늠하는 진짜 승부처이다.

이렇게 모든 팀이 공동으로 적립한 적립금은 우승팀에게 1/2이 돌아가고, 나머지 1/2은 우승팀의 학교에 책을 전달된다. 7연승을 하는 팀에게는 해외문화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작진은 출판관계자와 대학교수, 문학평론가를 중심으로 5명의 도서선정위원을 위촉해 매월 60권의 도서를 선정한다. 또한 문제출제위원을 따로 선정해 정선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결국 어느 팀이 책을 더 많이 읽어 오느냐에 따라 승패는 달라지게 된다.

## 가족과 책이 친구가 되는 프로그램 지향

시청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서바이벌 독서퀴즈왕〉 시청자 의견 코너에는 “〈서바이벌 독서퀴즈왕〉 대박 나소서” 등 재미있는 격려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또 초등학생으로 제한된 참가 자격을 중학생으로 넓혀 달라는 주문도 많다. “이런 프로그램 생겨서 참 좋아요. 독서퀴즈가 단지 흥미를 위한 것뿐 아니라 가족이 공감하고, 독서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킬



세 가지가 출연해 퀴즈 대결을 벌이는 <서바이벌 독서퀴즈왕>의 한 장면(좌). 진행자 최기환 아나운서(우).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슈가 단지 이슈가 아닌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서바이벌 독서퀴즈왕>의 모토는 ‘책 읽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책 읽는 그 날까지!’이다. <서바이벌 독서퀴즈왕>을 담당하는 김성환PD는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서바이벌 독서퀴즈왕>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책과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방송을 진행하는 SBS 최기환 아나운서는 “<서바이벌 독서퀴즈왕> 진행을 시작하면서 덩달아 책을 많이 읽게 된다”고 말

한다. 최 아나운서는 “처음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의외로 쉽게 문제를 맞추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초반이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책을 매개로 한 퀴즈 프로그램의 출현은 출판계로서는 반가운 마중물을 만난 셈이다. 새로운 차원의 독서운동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퀴즈프로그램뿐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퀴즈 프로그램도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

취재 정동석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서바이벌 독서퀴즈왕> 김성환 PD 치열한 경쟁보다 가족에 포커스 두고 싶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주일,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은 듯 보이는 김성환 PD는, “오랜만에 맡게 된 어린이 프로그램이어서 더 떨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PD는 “독서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출연해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을 볼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책과 퀴즈, 소재도 무궁무진하고 절묘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든다.

독서는 국민들의 문화적도이면서 한 나라의 미래 잠재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독서량은 한 달 1권도 안 된다.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보통 퀴즈프로그램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으로 대상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사실 책과 퀴즈, 가족 등 세 가지 콘셉트가 하나가 되어서 책을 읽는 풍토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치열한 경쟁보다는 가족이 하나 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싶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출제된 문제를 업데이트하고, 선정도서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의외로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해 주고 있다. 2월부터는 초등학교생만 있다면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 친척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